

<2011년 1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여 묻기를 “영원성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서 영원성의 존재자이니 얼마든지 영원성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인간도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기에 그 영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창조한 것이다.” 하셨다.
2. 지옥 쪽의 영들은 썩은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듯이 구원받은 자의 영혼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4. 금이라도 변하지 않게 관수하는 법칙을 벗어나, 가루로 만들어서 썩는 녹물에 넣고 거기에 각종 폐수를 섞으면 변질된 것이 되고 같이 썩는 것이 되어 버린다.
5. 인간의 영이 완전해져서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완전하게 신앙을 만들었어도 마음이 변하고 타락되면 그 영도 변질되어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자신의 영이 완전한 천국의 영이 되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과정 중이기에 자신이 변하여 타락되면 영도 그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타락된다는 것이다. 항상 절대적으로 주님과 일체되어 살아야 된다.